

‘동그란 세상’ 시음악으로 장애 장벽 허물다

CULTURE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차진환 작곡가 동트리오 결성 앨범 제작 프로젝트 자작곡에 AI기술 접목...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 담아

이른바 ‘근육장애’인 근이영양증을 앓는 차진환 작곡가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자작곡 앨범제작 프로젝트에 나섰다.

차 작곡가는 AI 작곡틀로 만든 자작곡 4곡을 담은 음반을 와디즈 펀딩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 오로지스튜디오의 윤혁진 대표와 협업으로 성사됐다.

차 작곡가는 윤 대표의 강의에서 AI작곡틀을 활용해 곡을 만든 것을 계기로 이번 작업을 제안받았다. 앨범에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과 인식 개선 의미를 담은 ‘해피버스데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차별금지 4행시를 가사로 담은 ‘동그라미’, 근육장애를 알리기 위한 ‘근육에 힘을 주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발라드곡 ‘꽃을 피우며 향기 가득한 삶’ 등 직접 작사 작곡한 4곡이 담겼다.

차 작곡가는 30대에 전신 근육이 서서히 경직되는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심해져 휠체어를 타게 됐다. 자유로운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에조차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근육성 질환으로 점점 몸이 굳어가는 와중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언제 병세가 악화돼 음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는 그에게

작곡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어도 가능한 새로운 예술 작업이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저신장증(왜소증), 뇌병변 등 장애를 가진 김정안, 김영웅을 섭외해 세명으로 구성된 3인조 동트리오(동그라미 트리오)를 결성했다.

울퉁불퉁하고 조금 모양이달라도 동그라미라 인정하는 것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같다는 희망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매주 일요일 세번에 걸쳐 광주근육장애인협회에서 녹음을 진행했다.

앨범 제작을 위한 와디즈 펀딩은 오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목표 금액은 80만원으로 후원자에게는 차진환 작곡가 친필싸인이 포함된 앨범 CD를 비



차진환 작곡가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자작곡 앨범제작 프로젝트에 나섰다. 사진은 앨범 작업에 참여한 동트리오 멤버들. 왼쪽부터 김정안, 김영웅, 차진환.

롯해 3만원 이상 후원 시 후원자의 사연을 담아 시들을 활용해 작곡한 곡을 증정할 예정이다.

차 작곡가는 현재 (사)광주근육장애인협회 대표이자 위송밴드, 이음밴드, 우리오케스트라 등으로 무대에 서고 곡을 만드는 한편 장애

인식개선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지금까지 33개의 자작곡을 만들었으며 비전센터, 광산장애인복지관, 공감인어스 등 다양한 기관에 6곡을 기증

했다. 그에게 노래는 단순한 예술 표현을 넘어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지켜주는 원동력이다. 남은 여생을 음악을 통해 비장애인이었던 시절과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며 이해와 소통의 예술을 선보이고자 한다.

그는 “강의에서 ‘공감, 감동, 동행, 행복’ 네 단어를 끝말잇기로 연결해 ‘공감이 되어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생기면 동행하게 되며 동행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비장애인들이 공감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음악”이라면서 “머리

에 빨간 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것보다 함께 노래하면서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장애 인식 개선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AI기술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가르쳐 주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그들에게 곡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AI기술을 접목해 장애 장벽을 넘어 다양한 예술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다경 기자 alsalsdl94@gwangnam.co.kr

당신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참여하세요

광주문화재단. 단체 모집 14일까지 지역 내·외 공연예술 전 장르 대상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 프로그램에 출연할 공연단체를 14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광주주시와 광주문화재단, 광주예술의전당이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구의 야외 거점 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동구 ACC상상마당, 남구 푸른길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3개소에서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서구 상무시민공원과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 2개소에서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공연이 열린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외 공연예술단체 또는 기획사로, 70분 내지 80분가량의 야외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대중음악과 전통예술부터 클래식, 무용, 댄스, 거리예술 및 융복합 퍼포먼스까지 야외에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거나 일상 속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전 장르의 공연예술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1건당 300만원씩 총 40건이며 전체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당신곁에’ 프로그램에 출연할 공연단체를 14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우리동네 프린지’ 행사 모습.

예산은 1억 2000만원이다. 선정된 단체는 하루 동안 80분 이내의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공연 형식은 타 단체와의 협업, 갈라, 창작공연, 레퍼토리 모두 가능하며, 재단에서는 출연료 외에도 기본 음향 시스템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 야외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공연이 적합하며,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참가방법은 신청서, 공연계획서 등 5가지 서류를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광주문화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광주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진행하며, 기획의도 적정성과 프로그램 우수성, 출연단체 역량, 시정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7, 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상설 운영된다. 시정연계를 위해 광주예술의전당과 협력해 진행하며, 광주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 40회, 광주예술의전당 20회 등 총 60회의 공연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alsdl94@gwangnam.co.kr

‘영원한 오빠’ 남진, 데뷔 60주년 전국투어

2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감사 전하는 무대”

‘영원한 오빠’ 남진이 오는 15일 전주 삼성문화회관을 시작으로 데뷔 60주년 전국투어에 돌입한다고 공연기획사 엠스텐이 5일 밝혔다. 남진은 전주 공연에 이어 22일 광명시민체육관, 2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 4월 12일 제주 한라체육관, 26일 서울 세종대 대강홀, 6월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는다.

그는 이번 콘서트에서 ‘남과 함께’, ‘내 마음 그대에게’, ‘동지’ 등 대표 히트곡을 라이브 밴드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특별 게스트가 출연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남진은 1965년 데뷔 이후 ‘영원한 오빠’로 불리며 많은 히트곡을 남겼

고, 최근까지도 각종 TV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남진은 “6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며 “이번 전국투어는 저의 음악 인생을 함께 주신 모든 분과 함께하는 감사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트리트의 진한 감동을 전하고 싶다”며 “힘겨운 애환의 삶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남진 60주년 기념 콘서트

내일의 꿈을
꿈꾸기입니다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평가를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공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물루션 **검색**